

전기안전공사, 뮤지컬 ‘6시 퇴근’ 무료 공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27일 완주군 본사 새울빌딩에서 뮤지컬 6시 퇴근 공연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주민 문화 축제 프로젝트 ‘KESCO 캠퍼빌레’의 첫 번째 공연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착순 신청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 하단의 QR코드로 접속하면 1인당 2매까지 티켓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무대에 오르는 6시 퇴근은 직장인의 애환을 담아낸 라이선스 뮤지컬이다. 매출 실적이 낮으면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은 제과회사의 홍보팀 직원이 겪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싱어게인 출연자 대호와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얼굴을 알린 홍은기, 아이돌그룹 CLC에 소속됐던 오승희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여기에 김철다, 이든, 강웅근 박태성 등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가 다수 출연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남원원에능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

남원원에능협은 7일 고령층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영업점 내에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안내문을 걸고 영업점을 방문한 고령층 고객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대포통장 근절 안내 전단지들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전화로 ‘감찰, 경찰, 금감원 직원’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라며 돈을 송금 요구할 경우 100% 사기로 절대 응하지 말고, 민와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능협 또는 거래 은행에 신고를 당부하였으며, 원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춘향제 기간 소방안전체험부스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제95회 춘향제 소방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체험 부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남원 예천 문화의 거리 인근에서 열린 춘향제 행사 기간 중 진행됐으며,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 △완강기 사용 체험 △연기 소화기 체험 △화재 대피 체험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안전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천동농협, 어버이날 원로 조합원 ‘떡 나눔’ 행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7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과 원로조합원들을 위한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구천동농협 본점에서 오전 8시 30부터 시작되었으며, 내방고객 100여명에게 카네이션 백설기를 전달했다. 농협 임직원들과 농가주부회원들이 직접 나서 지역 어르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김성곤 조합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작지만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애인들의 재능개발·문화예술 참여’

제19회 전국장애인 가요제 성료… 대상에 김동복씨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와 전주시장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전국장애인 가요제’가 지난 5일 오후 전주 풍남문화광장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장애인 가요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인들의 재능개발, 문화예술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장재희 전주시의회 의원, 이광영 제전위원장, 김양욱 가요제 본부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이사장, 장순식 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장, 이영재 전주시장 애인드레연합 회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가요제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또한, 가수 김호연·김윤석·이수정·진문택·황금석·한송이·정도현·정순임·구재영·정연숙씨, 폼바개나리, 색소폰 김종현, 난타, 무용 등 축하무대가 펼쳐졌다.

이날 대상 수상인 영예는 김동복(전주)씨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김정은(전주)씨가 차지했다.

강창일(충남 예산)씨와 손승원(전주)씨가 우수상을, 백정규(경남 사천)씨와 김수정(전주)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다.

정인식(전남 목포)씨와 이미영(전주)씨는 장려상을 수상받았으며, 김동진(전주)씨와 남기미(전주)씨는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윤석근(전주)씨는 특별상을 수상받



았다.

함께 진행된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는 김숙희 본단체 부소장이 도지사 표창을 가수 김미정(도로회)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을, 이광영 제전위원장이 교육감 표창을 김종현 장애인문화재단원이 전주시장 표창을 김명의 본단체 이사가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양욱 대회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요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국내 최고의 장애인 가요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요제를 위해 협조하신 모든 분들과 장애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광영 제전위원장은 “장애인 가요제 제전위원장 맡아 영광이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을 위해 더욱 후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

남원시는 제95회 춘향제 기간인 지난 9일, 서울 강서구와 남원예천 화인당에서 공동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도시는 협약서에 경제, 문화예술, 관광, 체육,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각 지역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하여 주민의 이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시와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구 각각의 강점이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와의 협약으로 남원시의 국내 교류도시는 경남 밀양시, 서울 구로구·서초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기 화성시·상남시·여주시·오산시에 이어 10개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교류도시와 문화·경제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남원



시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강서구가 우호결연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약식 자리가 양 도시의 우의를 다지는 단단한 초석이 되고, 앞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두 도시가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서울에서 멀리 남원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한 강서구 대표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큰 마음 하나로 ‘2025 세별 한마음 운동회’ 개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2025 세별 한마음 운동회가 계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계남초등학교(교장 최순철), 계북초등학교(교장 김영배), 천천초등학교(교장 박영표) 총 3개교가 공동으로 기획한 첫 체육대회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장수교육지원청 추영근 교육장은 “작은 학교 살아가의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간 협력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강조했다.

1부에서는 ‘지구를 굴러라’, ‘파도타기’ 등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2부에서는 ‘뛰어라 런닝맨’, ‘협동무빙볼’, ‘역전탈레이’ 등 책방 대결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협동과 화합의 장을 이뤘다.

계남초 6학년 김서현 학생은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니 게임에서 저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너무 기분이 좋으며 결과



보다 함께했던 시간이 더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계북초 황수용 운영위원장은 “작은 학교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많은 아이들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다”라며 뜻을 전했다. /장수=고만호 기자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 가정의 달 카네이션 꽃바구니 전달

관촌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창태, 조래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65세 이상 노인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등 100세대에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사를 7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에 노령의 어르신들이 더욱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며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헤아리고 보듬는 마음으로 각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정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과 사랑을 담은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하며 옛 추억을 되살리는 시간을 보냈다.

카네이션 꽃바구니는 주천마을 도연원에 서낙원 대표께서 4년째 정성으로 키워 후원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사랑을 담아 포장하여 전달했다.

조래춘 민간위원장은 “몇 개월 동안 땀을 흘리며 꽃 농사를 지어 후원해 주신 도연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노창태 관촌면장은 “어버이날 맞이하여 외로운 어르신에게 부모 공경과 효심을 담은 자녀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슴 뿌듯함을 전해드리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농협, 가정의 달 기념 모범직원 2명 수상

전북농협은 7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임실군지부 전호형 과장과 지리산농협 양삼만 과장이 가정의 달 기념 모범직원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 모범직원 상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농·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실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에는 전북 2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10명이 선정됐다.

전호형 과장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받은 장인·장모를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간호했으며, 재직기간 중 7개 시·군지부에서 근무하며 굵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는 숨은 일꾼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양삼만 과장은 4자녀와 2명의 어린 조카를 양육하며, 홀로 계시는 장모님의 열정으로 이사를 감행하며 통일전료를 동행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선정되었다.

이정환 본부장은 “수상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호형 과장

양삼만 과장



남원 덕과면, 효(孝)배달 사업 추진

남원시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성일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대)는 어버이날에 관내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효(孝)배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 협의체 위원들과 면 직원들은 가정을 방문해 카네이션과 여름 이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여름 이불은 환경기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된 물품으로, 어르신들은 찾아와 행거줘서 고맙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거동 불편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지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행보조기 5대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평소 1일 1가구 소동행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되었다.

한 어르신은 “집을 방문해 안부를 살펴주는것도 감사한데 보행보조기를 지원받아 외출할 때 도움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탄생화 손경미 대표, 수지면에 카네이션 등 기부

남원시 도동동에서 꽃집 ‘탄생화’를 운영 중인 손경미 대표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지면에 카네이션과 간식세트 등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선물은 카네이션 꽃바구니 139개와 떡 8되, 음료수 4박스, 수지면 독거노인 139세대에 전달하며, 긴 연휴를 홀로 지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어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 되었다.

손경미 대표는 “가정의 달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